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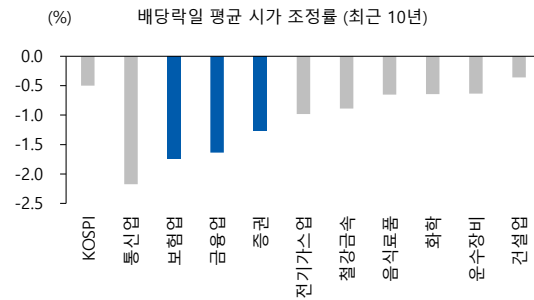


## 배당 투자 전략 점검

### 1. 아직은 과도기인 배당 절차

- 12월 전통적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증가. 과거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률
- 관심이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것. 올해까지는 의무가 아닌 만큼 기업들 간 배당기준일의 차이가 발생
- 배당절차를 변경하지 않는 배당주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한 상황

주요 금융주 중심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사례 확인당.  
배당락일 증시 변동성 완화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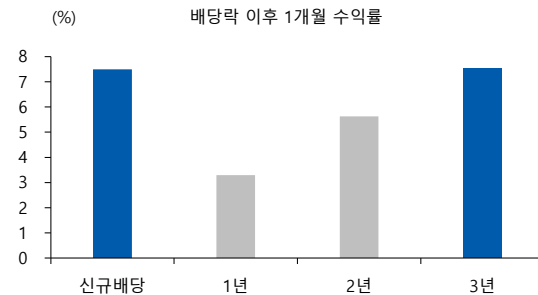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업종 분류는 거래소 기준

### 2. DPS 증가 종목은 언제나 옳다

- 배당주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DPS가 증가하는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배당제도와 관계없이 좋은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전략
- 22년을 기준으로 보면, DPS의 증가가 연속적이고 장기적일수록 이후에도 성과가 양호. 신규배당 종목도 높은 수익률 기록
- 23년 DPS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종목 중 23년을 포함해 3년 연속 D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종목 및 신규배당이 예상되는 2종목 스크리닝

22년 기준, 신규배당 종목과 3년 연속 DPS가 증가한 종목의 1개월 수익률 성과가 좋았음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기준

## 1. 아직은 과도기인 배당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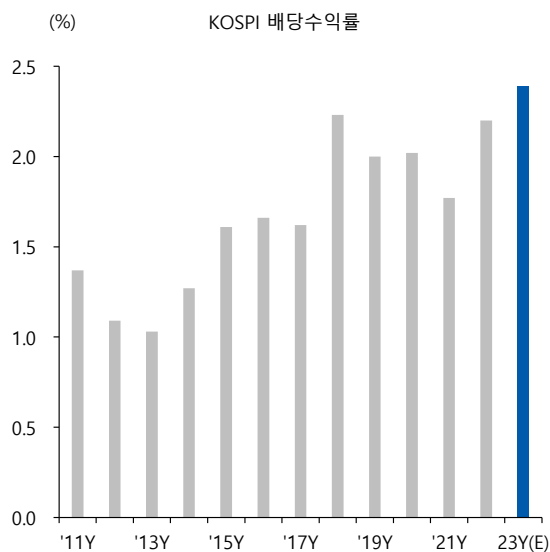
12월은 전통적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올해 배당수익률이 과거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당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올해 배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연초에 발표됐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배당금을 확인한 후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것은 올해이다.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올해까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마다 배당기준일이 상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요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유니버스 200종목 내 금융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20개 종목 중 15개 종목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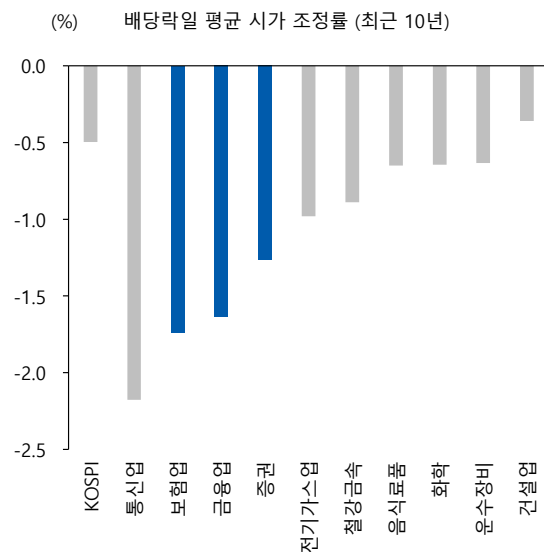
이로 인해 배당락일이 분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배당 절차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배당주에 대한 스크리닝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차트1]** 23년 배당수익률은 과거와 비교해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주요 금융주 중심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사례 확인. 배당락일 증시 변동성 완화 효과 기대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업종 분류는 거래소 기준

## 2. DPS 증가 종목은 언제나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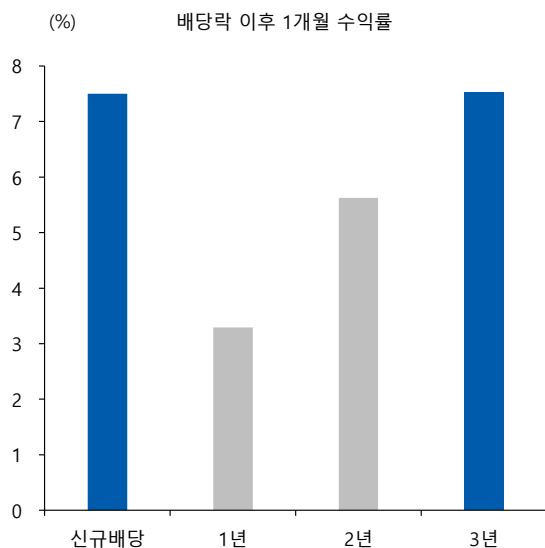
배당주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DPS가 증가하는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배당제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전략이다. DPS의 증가는 EPS의 증가 혹은 배당성향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이들 모두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실제로 DPS가 증가하는 종목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을 수익률로도 확인할 수 있다. 22년을 기준으로 보면, DPS의 증가가 연속적이고 장기적일수록 해당 종목의 수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규배당을 실시한 종목들 역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이 나타난다.

23년 DPS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종목 중 23년을 포함해 3년 연속 D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총 12종목이 스크리닝된다(배당수익률 2% 이상). 또한, 올해 배당수익률 1% 이상의 신규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2종목이 추가로 스크리닝된다.

이들 종목은 배당절차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혹은 처음 받게 될) 배당금 수취에 대한 기대와, 이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함께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이다.

**[차트3]** 22년 기준, 신규배당 종목과 3년 연속 DPS가 증가한 종목의 1개월 수익률 성과가 좋았음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기준

**[차트4]** 같은 아이디어를 2023년에도 적용 가능. 총 14개의 종목 스크리닝

신규배당 종목(배당수익률 1% 이상)

코드	종목	시총	수정dps	주가	배당수익률(%)
A114090	GKL	8,351	289	13,510	2.14
A037270	YG PLUS	2,877	60	4,695	1.28

3년 연속 DPS 증가 종목(배당수익률 2% 이상)

코드	종목	시총	수정dps(23년 예상치)				배당수익률
			20년	21년	22년	23년	
A051600	한전KPS	16,245	1,146	1,199	1,305	1,636	4.56
A037560	LG헬로비전	2,587	75	110	120	127	3.67
A215200	메가스터디교육	7,531	750	2,000	2,100	2,240	3.54
A282330	BGF리테일	22,832	2,400	3,000	4,100	4,253	3.24
A036800	나이스정보통신	2,210	460	590	650	685	3.10
A005610	SPC삼립	5,428	1,104	1,500	1,700	1,733	2.76
A069960	현대백화점	11,842	1,000	1,100	1,300	1,343	2.61
A021240	코웨이	40,368	1,200	1,250	1,300	1,338	2.39
A005300	롯데칠성	14,206	2,700	3,000	3,300	3,398	2.24
A234340	해토파이낸셜	2,226	350	470	500	540	2.24
A004170	신세계	17,012	1,500	3,000	3,750	3,816	2.19
A003380	하림지주	7,997	50	100	120	150	2.14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기준

### 3. 배당금 예상이 쉬운 종목은 저평가 여부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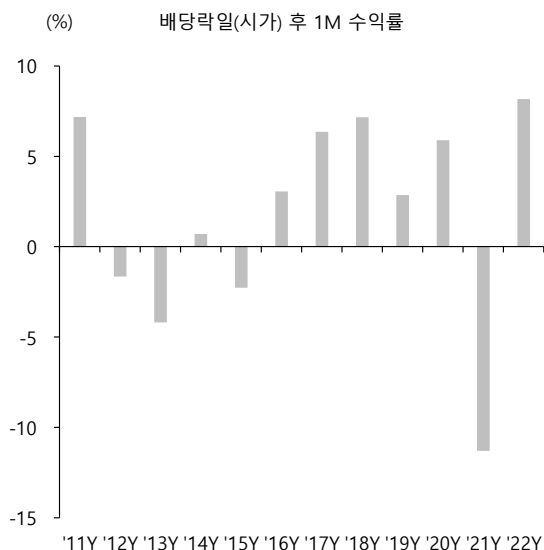
과거 KOSPI의 배당락일 후 1개월 수익률을 보면, 22년초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승했거나, 제한적인 낙폭을 기록했음이 확인된다. 저평가된 배당주를 선정할수록 배당락일 이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배당금 예상이 쉬운 종목을 활용해 저평가된 종목을 스크리닝해볼 수 있다. 특히, 과거와 같은 규모의 배당(정액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라면, 과거 대비 주가가 과하게 조정받고 있는 종목을 저평가된 배당주라 판단할 수 있다.

주가 저평가 판단을 위한 비교 대상은 각 종목의 12월 주가(최근 3개년)만을 활용했다. 12월이 배당주 주가가 본격적으로 예상 배당을 반영하며 움직이는 시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각 연도의 12월초부터 배당락일까지의 증가 중 가장 낮은 주가를 해당 종목의 현재 주가(12/18일 기준)와 비교해 저평가 여부를 판단했다.

KOSPI+KOSDAQ 전 종목 중 22년까지 최소 3년(최대 5년)간 정액배당을 실시한 종목은 37개로 집계된다. 이들 중 최근 3개년 최저가와 괴리율이 배당수익률보다 낮은 종목은 9종목이 스크리닝된다.

**[차트5]** 배당락일 후 KOSPI는 대부분 반등하거나 제한적 낙폭 기록. 저평가 배당주에 대한 고민 필요



자료: Quanti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아래) 연도 표시는 배당락일 기준

**[차트6]** 정액배당 종목들 중 현재의 주가 수준이 충분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9개 종목 스크리닝

코드	종목	시총	수정주가		괴리율	배당 수익률
			3년최저 (12월)	현재가 (12/18)		
A123890	한국자산신탁	4,029	3,100	3,205	3.39	6.86
A005440	현대제에프홀딩스	5,928	3,650	3,655	0.14	5.75
A016450	한세에스24홀딩스	2,008	4,825	5,040	4.46	4.96
A023410	유진기업	2,745	3,470	3,555	2.45	4.78
A009680	모토닉	2,798	8,170	8,520	4.28	4.69
A001520	동양	2,478	1,004	1,028	2.39	3.89
A075580	세진중공업	2,626	4,480	4,615	3.01	3.25
A139480	이마트	20,461	73,000	73,200	0.27	2.73
A017810	풀무원	4,106	10,680	10,760	0.75	0.95

자료: Quanti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기준